12강 - 1980년대 문제작 (2)

이번 시간에는 80년대의 문제작으로서 리들리 스콧Ridley Scott 감독의 <블레이드 러너 Blade Runner>라는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레이드 러너>는 1982년도 미국에서 개봉이 되면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호평을 받지는 못했던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바로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의 <E.T..>가 개봉했던 시점이었고, <E.T>는 인기를 얻게 된 데 비해서 이 <블레이드 러너>는 당시에는 묻혀졌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그런 의미에서 '80년대의 문제작'으로서 90년대 들어와서 재평가 되는 작품의 반열에서 1,2위를 다투는 그런 작품이 됐죠. 지금은 <블레이드 러너>는 유감없는 걸작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E.T.> 보다도 더 유명한 작품이 된 그런 작품인데요.

SF와 괴물에 관한 역사적 의미

이 영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SF영화와 SF 괴물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변천이 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SF 영화는 자기와 타자의 관계를 그리는 도식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영어로 '에일리언alien'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혹은 외계인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SF 영화는 항상 '에일리언'들을 묘사를 해왔습니다. 50년대 미국영화 속에서 '에일리언'은 핵폭탄에 대한 집단적인 공포, 또는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은유하는 존재로 등장해왔습니다. 이것은 미국적이지 않은 것, 익숙치 않은 것들을 다 몰아서 모두 '에일리언'의 형상 속에 은유화 시켰던 것이죠.

 외국 침입자들은 국가의 질서나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서 침입해온다고 느껴지게끔 했던 것인데요. 1950년대는 SF의 황금기였고, 그리고 1970년대 말 이후에 SF는 다시 르네상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60년대에 SF가 잠시 주춤 했었죠. 이 SF가 70년대 말 이후에 <스타워즈Star Wars>니 <터미네이터Terminator>니 이런 영화들이 80년대 90년대 풍미하게 되는데, 이것은 후기 자본주의의 문화 논리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 오게 되는 것을 단적으로 SF 영화가 다시 부흥하는 것으로서 증명할 수 있고요. 2000년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미래사회에 대한 전망, 지금은 뉴밀레니엄시기로 다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종말론이 다 없어졌지만, 1999년까지는 종말론적인 미래 사회에 대해서 불안감을 갖게 되는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헐리우드 공포 영화에서의 '에일리언'은 문화가 억누른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의 억눌린 감정, 이것은 반감, 증오, 거부하기 위해서 밖으로 표출된 형상인데요. 이 문화가 억누른 것은 문화 안에서 작용을 합니다. 우리 문화 속에 타자라는 것은

곧, 다른 인종을 말하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어린 아이기도 합니다. 또 사상이 다른 사람이기도 하고, 성적으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퀴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특히 미국영화의 SF 영화에서 가장 많이 은유화된 포장된 '에일리언'의 내용은 바로 이주민들, 타민족을 통한 민족적인 정체성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주민들에 대한, 미국에 이민 온 이주민들은 SF의 '에일리언'-타자로 즐겨 표현된 가장 지배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이 억압은 두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자기 안으로부터의 억압과 외부-밖으로부터의 억압입니다. 사회가 이주민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내적.외적으로 억압이 되는가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SF 영화는 90년대로 들어오는 길목에 있어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죠. 그것은 주체가 상실되고 타자와의 구별로서만 자기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증후입니다. 구별되는 이미지로서의 나열과 그런 볼거리들, 이런 것들이 스펙타클을 통해서 이미지가 끊임없이 기술복제 이미지의 세계가 되고, 모방이 되고, 모자이크식으로 나열되는 이런 현상을 갖게 됩니다.

이미지가 끊임없이 소비되는 사회,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사회인데, 많은 이미지들이 소비되면서 주체와 타자의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작품의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심해지는데, 소위 순일했던 장르가 이제 교차적 장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르가 혼용, 변용, 파괴되는 이러한 것이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패러디 미학'이 가장 우위를 점유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역사에서 소위 기억을 망각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가 압축 재현됨으로 인해서 순일하게 끌어왔던 역사 의식 같은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과거와 현재가 동시대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서 기억상실, 역사 의식의 상실, 그런 의미에서 무기력하게 바깥 세상을 바라보는 주체, 거기에서 생기는 불안감이 바로 암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데요. 종래에는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유토피아적 전망이 이제는 디스토피아, 불확실한 디스토피아 전망으로 바뀌는 시대적인 증후가 80년대 이후의 SF 영화에 나타나고, 특히 <블레이드 러너>를 통해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실제 역사가 상실되고, 허구-상상 속에서의 역사가 전개되는데, 바로 복제 인간에 대한 묘사가 그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시각적 차이로만 환원한다는 그런 포스트모더니즘 증후가 착각, 착시, 혼돈을 암시하는데 바로 이 영화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실제 인간과 복제 인간을 구별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 현상을 단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고요.

이주민과 외계인의 동일시의 역사

새로운 이주민과 외계인이 어떻게 역사적 배경을 갖고 결합이 되는가를 보면, 1960년대 이후에 60만 가까운 법적 이주민이 미국에 유입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포들도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그런 많은 수요 중에는 불법으로 유입 정착한 이주민들도 있는데요. 1년에 약 100만명에 가까운 사람이 불법체류자로 유입이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60년대 이후의 역사적 사실 속에서 바로 내적인 억압, 이런 것들이 국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SF 영화의 '에일리언'은 이러한 급증하는 이주민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는 것에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째는 1959년 쿠바의 카스트로가 사회주의 정권을 수립한 이후에 쿠바에서 이주민들이 상당수 건너오게 되었고, 또 농장 고용 농민 프로그램이 멕시코에서 있었는데 1964년에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멕시코 이주민들이 농장 고용을 합법적으로 미국과 계약함으로서 계속 이주민들이 멕시코에서 넘어왔는데 그런데 그것이 64년 이후로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 이후로 불법 이주가 늘게 됐고요.

1968년도 이민법을 미국이 제정을 했는데, 그것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다보니까 불법으로 체류하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남미의 이주민들입니다. 1985년도 통계를 보면 약 46%,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중남미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던 것인데요. 그러한 영향 때문인지 SF 영화에서의 '에일리언'은 특히 바로 중남미 이주민들을 보통 히스패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스페인어권의 사람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이주민 중에는 또 동양계도 상당수를 차지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동양인 이미지는 영화 속에서 '에일리언' 이미지로 많이 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겠죠.

외계인 묘사에 대한 해석

외계인 이미지가 영화 속에서 특히 아시아권, 중남미권의 이주민으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런 근거에서 SF 외계인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살펴 보도록 하죠.

SF 외계인들은 첫 째는 파괴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파괴적인 괴물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었읍니다. 화성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죠. 지금도 <에일리언>이라는 영화를 보면 '에일리언'이 굉장히 괴물로 나타나죠. 또 하나의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정적인 외계인입니다. 예를 들면 <E.T.> 같은 영화에 나오는 외계인 인데요. 동정적이고 뭔가 새로운 외계인 상이에요. 히스패닉 및 소수 민족들은 SF 영화에 다른 별에서 온 외계인으로 묘사되면서, 그 외계인은 반드시 제거되거나 그들의 별로 되돌아 가는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E.T.> 같이 도로 돌아가게 하거나, 또는 <에일리언> 같이 죽이게 되는, 제거하게 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제거하는 형태가 <에일리언Alien>(1979), <프레데터Predator>(1987), <터미네이터Terminator>(1984) 이런 영화들이고요.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E.T.>(1982)나 <클로즈 인카운터스Close Encounters Of The Third Kind>(미지와의 조우/1977)나, <해리와 헨더슨Harry and the Hendersons>(1987), <하워드 덕Howard the Duck>(1986), <설인>, <코쿤Cocoon>(1985) 이런 영화 속에 나타난 '에일리언'들입니다.

이런 이미지는 새로운 이주민에 대한 정치.경제적으로 취한 제도적인 변화에 대해서 미국이 답변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읍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미국인들은 이 새로운 이주민들과 직업이나 사회 활동에 있어서 경쟁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들을 무시했다가, 이제는 분노의 대상이 됩니다. 과거에는 무시했던 이미지로서 악당 등 굉장히 나쁜 괴물 이미지로 묘사를 했다가, 현재에는 제거해야하는 괴물이나 외계인, 또는 동화시켜야하는 이미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형-스테리오 타입이라고 하는 획일화된 형태가 힘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변화해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인 정책에 따른 영화의 변화

이러한 반反외국인 분노감은 사실, 1840년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약 1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이라고 하죠. 바로 이 '백인앵글로색슨기독교인'이 중심을 형성하는데요. 이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의 뿌리로서 정착하려고 하는 흐름, 그래서 인디안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리고 많은 외부에서 온 이주민을 제거하거나 순응시키고 동화시키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국가 이념을 앵글로색슨 - 영국 혈통의 백인 입장에서 미국이라는 국가 이념을 확립하려는 노력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민주주의라든지 인본주의, 평등주의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아시아나 중남미인으로부터의 사고가 아니라, 바로 이 앵글로색슨의 입장의 민주주의.평등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수 민족들은 본질적인 민주주의나 평등주의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 어떤 갈등 구조를 갖게 됩니다.

소수 민족들은 새로운 이상을 앵글로 색슨에게 촉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자유의 여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유.평등.박애 라는 고결한 이념 속에서 앵글로 색슨이 어떻게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타민족들을 억압하는지 이런 모순된 이중적 구조를 비판합니다. 미국은 100년 동안을 그러한 양면성으로 지탱해오면서 외적인 평등 이념과 현실에서의 이익의 집중-그래서 소수 민족을 아주 불평등하게 탄압하는 그런 사이에서, 미국은 평온하게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딪치면서 갈등을 빚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미국 이념이 - 겉으로는 인종적 개방 정책이 1970년대 말 SF 영화에서 이주민 문제를 인종적으로 고려하는 해석이 행해지게 되는데요. 앵글로 색슨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외국인을 배제함으로서 현상유지를 하고자 하는데, SF 영화에서 외계인들은 그들에게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드러나면서 관객들에게 적대감을 무의식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고립시키는 쇄국적인 이민 정책이 행해지게 되고 다원주의나 중앙 집권주의와의 갈등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새롭게 나타난 <E.T.>에서의 동정적인 '에일리언'의 이미지는 미국의 모순된 입장을 스스로-자체 내부에서-백인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배 이데올로기에 동화되고자 하는 외계인들을 묘사를 하죠. 그래서 지구인을 이해하고 지

구를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 형식이 동정적 외계인의 기본 이야기가 됩니다. 그들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역시 외계인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기보다는 그곳을 떠나야한다는 '집으로 돌려보내주자'는 지구인들의 입장이 영화 속에서 대사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E.T.>라든지 <코쿤>이라든지, <클로즈 인카운터스>, <스플래쉬Splash>(1984), <설인>, <해리와 헨더슨> 이런 영화들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 '집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준다.' 지구인은 심지어 그들에게 배우기도 합니다.

지적인 외계인으로 묘사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국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존재로서 그려지게 되죠. '외계인과 우리는 같이 살수 없다.' '여기서 살면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지구, 미국을 말하는 것이죠. <블레이드 러너> 같은 영화에서도 보면 떠나지 않으면 죽거나 그리고 분쇄되는 그러한 잔혹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정저 혹은 동화적 이미지

70년대~80년대에 크게 보면 부정적 이미지로서 파괴적 괴물이 등장하거나, 긍정적 이미지로서 동정적인 외계인이 나오는 그런 다양성을 보이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동정적으로 묘사한다고 해서 외계인에 대한 대우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복잡한 SF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동화된 외계인의 이미지는 미국에서 인기리에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 트렉Star Trek: The Motion Picture>(1979)에 나오는 스팍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고요. 또 수퍼맨 캐릭터, 또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레이첼이라는 여자 사이보그에 대한 분석을 보면, 주인공 형사 데카드를 살리고 다른 사이보그인 - 아주 강한 사이보그죠 - 리플리컨트를 죽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워드 덕>이라는 영화에서도 지구의 종말으로부터 지구를 구하고 나쁜 외계인들을 쳐부수는 그런 외계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구인 편에서 싸우는 이런 동정적인 외계인이 나오는데, 이러한 동화된 외계인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영화적 결론을 보이게 되죠.

이러한 동화의 논리를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성을 매개로 하는 결혼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외계인과 지구인이 서로 사랑하고 결국 결혼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결혼은 곧 사회적인 통념을 무너뜨리고 동화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회로 귀속한다.' '지구로 귀속한다.' 이런 것이 이제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이 <블레이드 러너>에도 결국은 나타나게 되죠. 동화와 협조 체제, 그것은 <하워드 덕>이라는 영화를 보면 결국엔 외계인이 지구 생활을 하게 됩니다. 록스타가 되죠. 록앤롤의 스타가 되고, <수퍼맨> 역시 정의와 미국의 생활을 위해서 변신해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또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동화된 외계인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이보그와 거짓 역사

사이보그 이미지는 새로운 '에일리언' 이미지인데요. 이것은 외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구 안에서 발생한 타자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공포심과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외형은 사람과 꼭 같지만 능력은 더 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사람 같이 보이지만 타자이고-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힘은 더 있고, 그러니까 본래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사이보그 이미지라든가 또는 <백 투더 퓨쳐Back to the Future>(1985)의 이야기 형태, 이것은 정말 역사를 왜곡시키는-거짓 역사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과거의 건강한 역사 왜곡을 현재로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현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아직 설명하지도 않은 미래의 과거를 현재로 다시 설정하는 그런 역사관인데, 이렇게 미리 설정된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수정하러 미래에서 급기야 내려오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물을 보면 (<터미네이터>), 인간의 역사에 반대적인 나쁜, 잔혹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생존의 이야기 형태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점차 가중되는 소수 민족의 위협을 배경에 깔고 앵글로 색슨의 정통성을 획득하려는 그런 수정된 역사주의, 또 적자보전 법칙, 이런 가정 하에 미국은 가중되는 소수 민족 증가의 위협 속에서 오직 유일하고 가능한 미래 상을 보여줍니다. 이런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결합해서 적통을 길러내고 그가 외부 세력을 무찔러서 순수한 인종적인 우월감을 가져야한다는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블레이드 러너>는 이러한 적통, 적자생존의 원칙. 적통 생존과 외부 세력을 제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는 어떤 자체 비판을 스스로 백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는 이 점증하는 사이보그들-타자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은 '블레이드 러너'-형사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 사이보그를 만든 회사가 있죠. 그게 타이렐이라는 회사인데 이것이 21세기 자본주의의 모습을 은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는 관심이 없고, 타이렐 사의 목표는 오로지 상업적 성공-비즈니스예요. 돈 버는 거죠. '인간보다 더욱 인간답게'라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 "~보다도 더욱 더 ~하게"라는 이런 표현은 과거 제너럴일렉트릭 - 전자회사 GE 의 캐치프레이즈하고도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그 캐치프레이즈는 "진보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다"인데 '좋은 것을 영원히 지금보다도 더 좋게' 뭐 이런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웠거든요. '지금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어떻게 보면 포스트모던한 미국의 축소판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죠. '미국보다 더 미국다운 디즈니랜드' 뭐 이런 식으로 - 포스트모더니즘 적인 그런 사고가 사이보그를 만들어 냅니다. 결과적으로 외형은 인간으로 보이지만 인간보다도 지적으로도 더 뛰어나고 육체적으로도 더 뛰어난 그런 인간 아닌 인간 같은 비인간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데커드 형사 -바로, 블레이드 러너는 인종유입의 불법을 감시하는 국경 감시 경찰인데요.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정체성 - 뿌리를 백인 중심으로 유지하는 것이 그의 임무입니다. 해리슨 포드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는 불순 세력을 뿌리 뽑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형사입니다. 그러나 그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그 형사 데커드는 알고 보니까, 외계인이 악인인줄 알고 돈 받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인간 적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런 일을 언제까지 떳떳하게 수행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인물은 히스패닉-중남미인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인물이 등장해요. 라자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반은 악당이고-왜냐면은 처음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반은 굉장히 정열적인 연인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라틴 러버" -스페인어 계통의 민족, 중남미인의 정열적인 연인상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가 여인을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게 됩니다.

혼란한 인종적인 다원주의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미국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그대로 영화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거리에서 보면 데커드와 가프가 지껄이는 말이 일본어도 있고요, - 뭐 일본 우동집도 나오고, 또 스페인어도 쓰고, 독일어도 쓰고 이런 것들이 언어적으로도 굉장히 복합되어 있고요. 길거리의 복잡한 많은 아시아인, 중남미인, 백인, 흑인..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보입니다. 주로 인종 다원주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더럽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갖게끔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두운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이민 개방 정책으로 만들어 낸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미국은 자기들이 만든 리플리칸트 복제물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키운 이런 소수 민족들이 결국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기회를 줬으니까 그들은 보답으로 당연히 우리 미국인들-백인들한테 잘 해야하는데 거꾸로 그들이 저항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런 논리를 영화 속에서 보여줍니다.

블레이드 러너 형사는 결국은 자국 인종주의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왜 여기서 살 수가 없나?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인 것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소수 민족들이 이주하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에 닥친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런 비판 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화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것을 정확히 해결하지 못합니다. "개방 이민주의는 소수 민족이 미국을 위해서 공헌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가 숨어 있는데요. 그들이 떠나면 또 사실은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되죠. 많은 노동력이 상실 되니까요.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로이라는 사이보그 리플리컨트가 죽음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순간은 시간 속에 사라진다. 빗속의 눈물처럼."
이런 대사를 데커드가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표정을 짓는데 로이가 이어서 이런 대사를 하죠.
"우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또 얼마나 소유할 수 있는가?"

이러한 미국 자본주의 문명의, 백인중심주의 문명의 비극적인 종말-미래에 대해서 아주 비

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탈하게 마치 예수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의 마지막 순간처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을 보이면서 이 영화는 많은 교훈을 줍니다. 백인들에게 각성을 주고, 종래에 봐왔던 SF 영화 이미지를 확 바꿔버리는 대단히 80년대의 문제작으로서 등장하게 되죠.

이 영화는 개봉 당시에는 해피엔딩으로 처리가 됩니다. 불안한 디스토피아에 대한 전망을 보여주지만, 이러한 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 암울하고 비관적이기 때문에 영화 제작자의 권유로 인해서 해피엔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에 불만을 갖고 있던 리들리 스콧 감독이 다시 90년대에 와서 감독판-무삭제 판을 관객에게 선보임으로써 그 영화가 더욱 더 불안한 미국의 딜레마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적으로 그렸다는 것을 감독이 스스로 감독판을 공개함으로써 관객들에게 해소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우리가 봐왔던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 백인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을 SF라는 형식을 통해서 보여준 아주 건강한 미국 영화로서 많은 관객들에게 깊은 사고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